

이낙연 취임 100일...강한 리더십 '호평'

'국민 눈높이' 고강도 기강잡기 성과

통신비 지원·윤석열 국정조사 등 실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았다.

지난 8월29일 이른바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으로 불리는 강력한 대세론을 등에 업고 취임한 이 대표의 100일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시각이 많지만 부정적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는 '7개월 짜리 당 대표' 논란 속에 당선됐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면서 동시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통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상 계파·세력 간 갈등으로 비화하곤 했던 전당대회 후유증도 통합의 리더십으로 예방했다.

특히 여론에 민감한 언론인 출신답게 당 소속 인사들과 관련한 잇단 악재에 강도 높은 기강잡기로 대응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건 공약대로 윤리감찰단을 신설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하고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고강도 윤리감찰단 조사를 진행해 자진 탈당으로 이어지게 한 장면이 대표적이다.

부정선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쳐 가결 시키는가 하면 윤영찬 의원이 '포털 외압' 의혹에 휘말리자 바로 다음날 "엄중히 주의하겠다"면서 신속하게 진화한 것도 '속전속결' 대응과 '쇄신' 의지가 빛난 대목으로 꼽힌다.

대표 취임 후 단행한 인사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여성인 한정에 정책위의장의 발탁, '24세 대학생' 박성민 최고위원의 깜짝 기용, 노동계의 박홍배 최고위원 인선 등은 이 대표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여성·청년·노동'을 모두 충족시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와 당직 인사는 당에 올바른 변화를 준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불거지던 후유증도 통합적 행보로 잘 마무리했고 김태년 원내대표와도 호흡이 잘 맞아서 원내 협상을 잘 진행해온 조화로운 리더십이 돋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대권을 염두에 둔 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과정에서 실기가 적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도 얽잡힌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내놓았다가 비난 여론에 시달리고 끝내 지금 범위가 대폭 축소된 장면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공개리에 제안한 만큼 이 대표로서는 입맛이 쓸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추미애-윤석열 갈등' 정국에서 추 법무장관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가장 먼저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을 놓고 성급한 판단으로 야당에 역공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국회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야당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병행하자는 '문고 더블로' 전술로 맞받아치고 당 내부에서도 자칫 윤 총장에게 '명석'만 알아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당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이 대표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탓

에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부터 이 대표의 '판단 미스'라는 얘기도 오갔다.

'엄중' 스타일로 유명했던 이 대표는 취임 초기 선명성보다는 관리형 메시지에 집중하며 '한방'이 아쉽다는 평가를 들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국정조사'에서와 같이 검찰개혁에 있어 눈에 띄게 공격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조바심 때문에 '진문 지지충'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 취임 후에도 민주당이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뼈 아프다. 이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과 당 소속 주요 인사들의 성추행 논란, 부동산 민심 약화에 따른 여론의 지지율 하락세 속에 대표직에 올랐다. 뉴시스



'최장수 장관' 강경화, 文 신임 재확인 ...'오경화' 끝까지 가나

개각에도 원년 멤버 중 유일하게 남아...3년6개월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며 원년 멤버 중에는 유일하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만 남았다. 강 장관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장관에 취임해 3년 6개월째 자리를 지키는 최장수 장관 반열에 오르며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다시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 장관은 미국 정권 교체기에 한미 동맹 현안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에서 정권 후반기 안정적인 외교 정책 추진을 위해 유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따른 외교관 성비위와 기강해이 사고, 남편의 부적절한 미국 출국 논란 등이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에서 'K방역'을 알리는데 앞장섰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대중국 경제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년 초 역대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 현안으로는 한미가 1년 넘게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차기 행정부에서 조속한 타결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과제다.

강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세계 각국에 'K방역'을 알렸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각국이 봉쇄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방역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각국에 공유하면서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野 송곳검증 예고에 전해철 "청문회 준비 잘하겠다"

행안장관 내정 후 첫 출근...본격 청문회 준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전 후보자는 휴일인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 (각종 우려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입장에서 많이 말하는 게 적절하

지 않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이 걱정하고 어렵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정부혁신과 자치경찰 등 많은 현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 있었던 질문에는 "후보자 입장에서 여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기회가 닿는대로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과 재난안전 분야 관련 업무보고부터 먼저 받고, 향후 인사청문회까지의 전반적인 계획을 논의·확정한다.

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국별로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다.

행안부는 전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등 인사청문요청서 필요 사항을 오는 8일까지 인사혁신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면 국회는 요청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달 말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